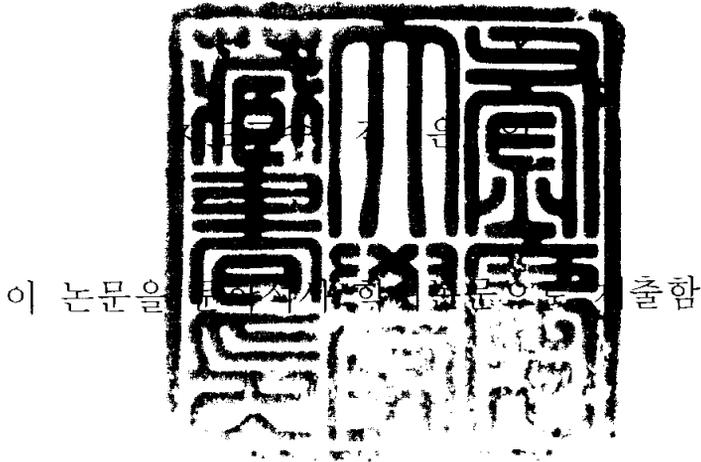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불변화사 이동의
담화 · 화용적 분석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임금희

임금회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24일

주심 언어학 박사 안 수 응 (인)

위원 언어학 박사 박 순 혁 

위원 언어학 박사 김 은 일 

< 목 차 >

영문초록	v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2.1 불변화사의 정의.....	6
2.2 주제성	10
3. 연구방법론	
3.1 선행연구.....	12
3.2 연구방법론.....	15
4. 결과 및 토의	
4.1 직접목적어의 음절길이.....	21
4.2 직접목적어의 언어형태.....	26
4.3 직접목적어의 지시적 거리.....	33
4.4 직접목적어의 지속성.....	39
5. 결론	46
참고문헌	49
부록	

A Discourse-Pragmatic Approach to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Keum-Hee Y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rse and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transitive phrasal verb.

A variety of factors were claimed to influence the choice of one order over another in the transformational generative paradigm, but they were not adequate to describe, explain and predict the particle movement by native speakers. Most variables were based on a made up non-authentic example sentence. There was no analysis aimed at predicting particle movement in natural discourse situations.

Speakers presumably organize their thoughts in order to arrive at constructional choices. To explain how speakers choose the construction they do, Chen(1986) presents the hypothesis that under otherwise similar conditions, particle movement is more likely to occur when the direct object stands high in "participant continuity" with the preceding discourse and low in "relevance"

to the following discourse.

In this study, drawing on the work by Chen(1986), I examine 346 data sets of various kinds to confirm this hypothesis.

There are three intimately related variables that are called participant continuity of the direct object. (1) the length of the direct object, (2) the encoding type and (3) the distance to its antecedent in the discourse. In this study, relevance to the following discourse is measured in terms of (4) the times that the referent is mentioned in the subsequent ten clauses.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difference from Chen(1986) in the analysis of the relevance to the following discourse. Particle movement is more likely to take place when the direct object stands high in participant continuity to the preceding discourse while it doesn't have any relevance to the following discourse.

Finally, I claim that height in participant continuity to the preceding discourse over the particle movement is a more important index than relevance to the following discourse.

1. 서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있다. 화자는 청자에게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을 피력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식을 구성한다.

성공적이며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화자는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청자는 전달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표현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이란 올바른 문장형성을 위한 문법 규칙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용인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상황에서 그에 알맞고 적합한 언어표현을 골라 쓸 수 있는 담화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담화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전달이라고 할 때,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현실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보편적 정보(general information),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황적 정보(situational information), 발화시 전·후로 전달되는 문맥적 정보(textual information)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시 청자와 관련하여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별된다(정희자 1999). 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어진 정보 또는 구정보, 화자가 새로이 보태는 지식을

신정보라고 한다. 현저성을 신정보와 주어진 정보의 구별기준으로 한 연구는 Chafe(1976)를 들 수 있다. Chafe(1976)는 문체의 지시체가 선행문에서 언급되었거나 담화 상황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화시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을 주어진 정보(구정보), 화자가 말을 함으로써 청자의 의식 속에 소개되는 것을 신정보로 보았다.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장의 문법구조를 판단하는 담화분석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영어의 동사 구조를 살펴보면,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동사와 불변화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동사+불변화사 결합구조(Verb-Particle Combination)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원어민의 일상생활에서 영어사용을 살펴보면 기본 동사를 이용한 구동사(phrasal verb)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동사란 ‘동사+불변화사’의 형태를 말하는데 불변화사 이동이란 이러한 구동사 구조에서 불변화사가 동사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cf. Bolinger 1971, Dixon 1982, Cumming 1982). 다음은 불변화사 이동의 예를 살펴 본 것이다.

- (1) a. John *picked up* the book.
 b. John *picked* the book *up*.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1a)는 불변화사가 이동하지 않은 구문이고, (1b)는 불변화사가 이동한 구문이다. 두 가지 예시가 모두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라면 (1a)는 어떤 경우에 쓰고, (1b)는 또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문장의 의미는 또한 문법구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진다.

(2) a. They *called* him *up*.

b. *They *called up* him.

(3) a. They *called up* him(not his sister).

b. *They *called* him *up*.

(4) a. He *gave away* all the books that he collected when he was in Europe.

b. *He *gave* all the books that he collected when he was in Europe *away*.

위의 예문 (2)와 같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기에 정보성의 관점에서 구정보가 되고 구동사인 *call up*은 신정보가 되어 불변화사 이동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구정보가 신정보보다 더 선행해서 오기 때문이다. 예문 (3)과 같이 목적어가 대명사라 하더라도 목적어가 강세를 받으면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예문 (4)에서와 같이 목적어 길이가 긴 경우에는 불변화사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담화에서 목적어를 신정보로서 소개할 때는 그

목적어의 설명을 위해 수식어구들이 붙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성의 관점에서 신정보가 된다.

(5) a. John *picked up* a book and threw it out the window.

b. John *picked* a book *up* and threw it out the window.

(6) a.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the book *up* and went upstairs.

b.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up* the book and went upstairs.

위의 예문 (5),(6)의 모든 예문들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문 (5a)와 (6a)를 예문 (5b)와 (6b)보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라 생각한다. 예문 (5a)에서 a book이 신정보로서 출현한 뒤, 구정보가 되어 대명사 it으로 대체되었고, 예문 (6a)에서도 a dark covered book이 신정보로 나와서 다음 문장에서 불변화사가 이동이 되어 the book이 선행해서 구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다른 비슷한 예문들에서도 예문 (5a)와 (6a)에서와 같이, 담화 속 맥락에서 주제성이 어순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 대해서 Morgan(1982)와 Hopper(1983) 사이에서 흥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불변화사 이동의 현상을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했지만,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Morgan(1982)은 동사와 불변화사의 구조를 담화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반문을 하며, 통사적이고 구조적으로만 설명하였다. 반면, 그의 입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Hopper(1983)는 동사와 불변화사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담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어느 누구도 세부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Chen(1986)은 Hopper(1983)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밝히면서 두 가지 가능한 어순 중에 화자나 청자에게 더 선호되는 어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담화적 접근을 통하여 불변화사 이동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en(1986)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원어민의 다양한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불변화사의 이동을 담화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담화의 가장 큰 목적인 정보전달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불변화사 및 정보성에 관해 살펴본다. 3장에서 Chen(1986)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주제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언어 분석자료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인 Chen(1986)의 결과를 비교 토의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남을 것인가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배경

2.1 불변화사의 정의

불변화사는 그 구조에 대한 명칭이 통일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학자들마다 조금씩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Palmer(1974)에 따르면 불변화사(Particle)는 전치사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며 의미상으로 불변화사와 전치사를 구분 짓는 기준은 전치사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방향 또는 의미가 관용적일수록 전치사라기 보다는 불변화사인 것으로 본다. 또한 형태상으로 불변화사는 목적어가 생략된 전치사와 같은데 이렇게 볼 때 전치사로부터 불변화사의 관계는 일종의 연속선을 형성하는 진화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변화사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Otto Jespersen(1961)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등이 문장 내에서 주요소가 될 수 없으며 단지 문법적인 기능만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들을 하나하나의 품사로 보지 않고 불변화사로 정의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자.

(7) a. He *got up* early. (부사)

b. *Climb up* the wall. (전치사)

위의 예문 (7a)에서의 'up'은 부사이고, 예문 (7b)에서의 'up'은 전치사이다. 이와 같이 한단어가 형태의 변화 없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불변화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넣는다.

Akmajian and Heny(1975)는 동사가 전치사와 결합하여 동사적 표현을 이루었을 때, 이 전치사가 동사에서 분리되어도 바른 문장일 경우 이동 가능한 전치사를 불변화사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8) a. He *ran up* a big bill.

b. He *ran up* a big hill.

(9) a. He *ran* a big bill *up*.

b. *He *ran* a big hill *up*.

위의 예문 (8)의 두 문장에서 'up'을 각각 동사와 분리하여, 목적어 뒤로 이동시키면 예문 (9)와 같이 되는데, (9a)는 이동이 가능하여 정문이지만 (9b)는 이동이 불가능한 전치사로서 비문이 된다. 따라서 (9a)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불변화사로 보고 있다.

Quirk *et al.*(1972)는 타동사+부사(transitive verb+adverb)로 구성된 구동사의(phrasal verb)의 직접목적어가 문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의미의 변화도 없이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할 수 있을 때, 그 부사(adverb)를 불변화사(particle)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0) a. John picked up the book.
b. John picked the book up.

위의 예문 (10)에서와 같이 문법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와 이동되는 구조가 모두 가능할 때, 이때, 'up'을 구동사의 불변화사로 보고 있다.

Celce Murcia and Larsen-Freeman(1999)은 두가지 순차적 테스트를 통하여, 분리가능한 구동사, 분리불가능한 구동사, 동사+전치사 구분을 구분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Peter looked up the new word.
b. Peter looked at the newspaper.
c. Peter looked into the matter.

예문 (11)은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직접목적어가 동사와 불변화사나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있는냐에 따라 분리가능한 구동사를 분리 불가능한 구동사와 전치사구문과 구분하고 있다.

- (12) a. Peter looked the new word up.
b. *Peter looked the newspaper at.
c. *Peter looked the matter into.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일차적으로 (12a)는 분리가능한 구동사로 구분되었다. 다음은 (12b)와 (12c)중에서 어느것이 분리불가능한 구동사이고 어느 것이 전치사구문인지에 대한 구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12b), (12c)를 wh의문문 앞으로 전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a. At what did Peter look?

b. *Into what did Peter look.

(13a)에서처럼 wh의문문 앞으로 요소가 이동 가능한 것은 전치사구이고, (13b)에서처럼 wh의문문 앞으로 요소가 이동 불가능한 것은 분리불가능한 구동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구조중에서 (12a)와 같은 분리가능한 구동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때 불변화사의 위치는 동사 바로 뒤에 올 수도 있고, 직접목적어 뒤로 이동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4b)에서처럼 불변화사가 직접목적어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떤 요인이 이러한 이동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14) a. John *picked up* the book.

b. John *picked* the book *up*.

2.2 주제성(Topicality)

담화에 있어서 주요한 목적은 효과적 의사소통에 있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적 접근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담화의 주요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 전달은 담화 상황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화자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상대방에 전달되도록 문장을 엮고 그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달하는 정보에는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전달하는 정보가 모두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면 청자에게는 부담스럽다. 화자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적절히 배열하여 중요한 정보에 청자의 주의가 기울여지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적절한 화제를 출발점으로 함으로써 정보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전달 내용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화제는 화자가 선정하지만, 청자는 그것에 의해 주목의 방향이 한정되어 전달내용의 이해가 쉬워지는 효과를 갖는다. 화제가 하나 선정되어 담화에서 처음 언급이 되면 그것은 처음 청자에게 소개가 됨으로써 신정보가 되고, 그 화제가 다음 담화이전까지 언급이 많아지면 구정보가 된다. 언급이 많다는 것은 그 문장에서 있어서는 주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신정보이고 구정보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있어 왔다. Halliday(1970))의 기본적 생각에서는, 구정보란 반드시 앞의 문맥에서 말한 것(previously mentioned)일 필요는 없고, 앞의 문맥에서 청자가 이끌어낼 수 있는(derivable) 정보라고 한다.

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Halliday(1970)는 ‘예측되는 (predictable)’이라든가 ‘복원될 수 있는 (recoverable)’ 것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것이다. 즉, 앞의 문맥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청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고 화자가 판단하는 사항까지 구정보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정보와 구정보의 성격은 후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답화의 주제성을 텍스트만의 자료로 계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3. 연구방법론

3.1 선행연구

Chen(1986)은 영어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 문법적 환경이 비슷할 경우, 불변화사가 목적어 다음으로 이동되는 구조와 이동되지 않는 구조 중에서 더 선호되는 점을 발견하고 영어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14) a.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 table. John *picked* the book *up* and went upstairs.

b.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 table. John *picked up* the book and went upstairs.

위의 예문에서 원어민들은 (14a)가 더 자연스런 문장이라고 선택했다. 이러한 점은 문장 차원에서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에 Chen(1986)은 그의 연구에서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상의 직접목적어의 기능에 따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가설로는 다음과 같다.

불변화사 이동은 직접목적어가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높고, 후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많고 후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은 그 목적어가 구정보임을 나타내고 주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적인 형태에 따른 구동사는 구동사 그 글자그대로의 의미에서 관용적인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글자그대로의 의미 - hang up, put out, take away...

관용적인 의미 - figure out, blow up, turn down...

동사와 불변화사의 유대감은 구동사 그 자체의 의미에서 관용적인 의미 쪽으로 나아가면서 커진다는 것이다. 즉, 구동사가 관용적인 의미일 때, 불변화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형태에 따른 불변화사 이동의 분포

(Chen 1986. *Studies in Language* 10.1, 79-95.)

형태	불변화사 이동
글자그대로의 의미	53.57% / 280개
관용적인 의미	38.1% / 357개

그러나, 불변화사 이동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구동사의 의미적 자질의 영향은 배제하기로 한다. Chen(1986)의 분석 자료로는 Chafe(1980)의 *twenty year stories*와 영국의 작가 Dorothy L. Sayers가 쓴 소설 *Have His Carcase*의 300페이지에서 구동사 총 239개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의미의 큰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불변화사 이동이 되는 구조와 이동이 되지 않는 구조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구동사만을 선택하였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15) a. He *brought* the milk *in*.

b. He *brought in* the milk.

그의 가설에 따라 선행 담화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직접목적어의 음절길이, 언어형태의 종류,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를 측정하고, 후행 담화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속성(persistence)¹⁾을 측정하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Chen(1986)의 선행연구는 영어의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힌 Hopper(1983)의 주장을 구체적인 원어민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은 선행 담화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연속성(Participant Continuity)’과 후행 담화와 ‘관련성(Relevance)’의 관점에서, 담화상 직접목적어의 정보적 위상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Givón(1983) a,b에서 정보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지시적 거리와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3.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서 대명사를 제외한다.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앞 문맥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므로 정보성의 관점에서 구정보가 된다. 그래서 그 목적어보다는 구동사가 신정보가 되어 불변화사 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목적어가 문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의미의 변화도 없이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구조와 이동되지 않는 구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불변화사의 이동이 실제 언어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량화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라는 특정한 언어표현에 있어서 일정한 담화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불변화사 이동에 어떤 담화적 성격이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Cumming(1982), Chen(1986)등의 이전 연구에서처럼,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은 선행 담화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높을수록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높다는 것은 목적어 음절길이가 비교적 짧고, 목적어의 부호화되는 형태가 비한정 명사구(부정관사..)보다는 한정 명사구(소유형태, 정관사) 형태이며, 목적어가 선행하는 담화에서의 지시적 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은 목적어가 후행 담

화에서 지속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의 가설에 따라 선행 담화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직접목적어의 음절길이, 언어형태의 종류,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를 측정하고, 후행 담화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속성(persistence)을 측정하기로 한다. 4가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적어 길이는 목적어의 음절길이를 통계 분석한다. 목적어의 길이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목적어의 단어길이와 음절길이를 분석하였는데, 단어의 길이와 음절의 길이 모두 짧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같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Chen(1986)의 방법에 따라 음절길이만을 나타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6) The nurse *jams the shot in*, [2음절] and we roll *Beth back*. [1음절] (*Readers Digest*)

(16)의 예문은 구동사 *jam in*과 *roll back*의 목적어인 'the shot'과 'Beth'의 음절길이가 각각 "2"음절과 "1"음절이다.

Givón(1983c)에 의하면, 직접목적어의 음절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보이며 직접목적어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 길어질수록 신정보로 보며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목적어 길이가 비교적 긴 것은 신정보로써 어떤 정보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길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선행 담화에서 언급이 되어 이미 구정보가 된 것은 짧고 간단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Givón(1983c)의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두 번째, 구동사의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와 이동되지 않은 구조에서 직접목적어의 언어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형태별로 통계 분석한다. 직접목적어의 형태는 신정보일 때 비한정 명사구 표현이 빈번히 나타나고, 앞 문맥에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언급할 때는 소유격 형태와 정관사 형태인 한정 명사구 표현이 빈번히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7) As Connie *took the plates away*, I noticed a stack of newspapers that had obviously been read before I got there. (*tuesdays with Morrie*)

(17)의 예문에서 구동사 take away의 직접목적어는 'the plates'로 정관사 명사구인 한정명사구이다. 직접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일수록 높은 등장인물²⁾의 연속성을 보이며 직접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일수록 신정보로 보며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다(Givon 1983c).

세 번째, 지시적 거리는 하나의 등장인물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에서 동일 지시대상이 맨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때 거리란 절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8)의 예문을 살펴보자.

2) 본 연구에서 '등장인물'이란 용어는 구동사의 목적어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무생물, 추상 명사 등을 포함하는 모든 명사구(NP)를 의미한다.

- (18) a. Somehow *my shoes* slipped off my feet. / I don't know /
 how that happened / because I had socks on, / and the
 socks should have *kept my shoes on*. (*Chicken soup*)
- b. ...seized *land* owned for three decades by 74-year-old
 William Gross, / in order to allow a BMW retailer / to
 expand his dealership. / In New York, the city of New
 Rochelle proposed *taking land away* from... (*Readers
 Digest*)

(18a)의 세 번째 문장의 'my shoes'는 앞 문맥의 동일 지시대상인 'my shoes'와 4절 떨어져 있으므로 소유격 명사구 'my shoes'의 지시적 거리는 "4"가 된다. 또한 (18b)의 네 번째 문장의 'land'도 동일 지시대상이 앞 문맥의 세 번째 절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land'의 지시적 거리는 "3"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Givón(1983a)을 따라서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거나 적어도 20개 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등장인물에는 항상 '20'이라는 수치를 부여했다. 20이란 수치는 무한수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화자의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질 수 있는 단기기억 파일이 이 지시적 거리 측정법과 심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근거로 최대의 거리를 20으로 정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 20절 이전에 언급된 지시대상과 같은 정도로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Givón(1983a)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는 것이다. 지시적 거리는 동일 지시대상이 떨어진 거리에 따라 최소 1
에서부터 최대 20까지의 수치가 부여된다.

지시대상의 지시적 거리는 낮을수록 그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어진 텍스트에서 그 지시
대상의 주제성(topical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시대상의
지시적 거리가 클수록 그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 지시대상은 텍스트에서 주제성
이 낮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지속성은 하나의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오른쪽으로
연속되는 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또한 지시적 거리와 마찬가지로 절의 수로서 수치를 표시한다.
다시 말하면, 지시대상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 다음에 나타난 후행
담화의 10절 안에서 얼마나 빈번히 언급되는 지로 분석한다. 그리고 다
음 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Chen(1986)의 결과와는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비교하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9) The nurse jams the shot in, and we *roll Beth back*. / Then
her fight is over. / It says over / as the nurses put up the
side rails of the trolley / and wheel *her* / to the operating
theater.....beside *her* in the holding area, / ...where I caress
my sister's arm / [4절]..(*Readers Digest*)

(19)의 첫 번째 문장의 구동사 roll back의 직접목적어인 Beth의 동일 지시대상이 두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 'her', 세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 'her', 네 번째 문장에서도 대명사 'her'로 나타나고, 마지막 문장에서 my sister's로 4번 연속해서 10절 이내에서 나타나므로 지속성이 "4"가 된다.

지시대상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 지시대상이 후행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후행 텍스트에서 그 지시대상의 주제성(topical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시대상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그 지시대상이 후행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 지시대상은 후행 텍스트에서 주제성이 낮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Chen(1986)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되, Chen(1986)의 자료와는 다른 텍스트로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자료로는 *Readers Digest*와, 장편 에세이 *tuesdays with Morrie*와 단편 에세이 *Chicken Soup*, 그리고 소설로는 *Rich Dad Poor Dad*이다. 대명사 목적어를 제외하고, 명사 목적어만을 취한 구동사 총 346개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불변화사 구문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4. 결과 및 토의

대명사 목적어를 제외하고, 명사 목적어만을 취한 구동사 총 346개 문장의 중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 100개와 이동되지 않은 문장 246개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에서는 4가지 측정방법 즉, 직접 목적어의 음절길이, 언어형태의 종류,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와 지속성(persistence)에 따라 어떤 담화 문맥에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4.1 직접목적어의 음절길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분석결과는 직접목적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보이고 직접목적어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길어질수록 신정보였으며 선행 담화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음절수에 따른 불변화사의 이동 분포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2> 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의 음절수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115	63	54.8%	52	45.2%
3-5	148	35	23.6%	113	76.4%
6-10	55	2	3.6%	53	96.4%
11-15	20	0	0%	20	100%
16--	8	0	0%	8	100%

위의 <표2>음절수에 따른 분포비교표는 Chen(1986)이 분석한 방법으로 음절수를 “1-2”, “3-5”, “6-10”..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이다. 음절수가 “1”음절이나 “2”음절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예문이 54.8%로 이동하지 않는 예문 45.2%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이동하는 예문은 54.8%에서부터 23.6%, 3.6%, 0%로 줄어들고 있고 이동되지 않는 예문은 45.2%에서부터 76.4%, 96.4%, 100% 순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수가 “11”음절 이상이 되면 불변화사 이동이 0%로 나타나고 이동되지 않는 경우는 100%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어가 11음절 이상이 된 예문을 살펴보면 목적어를 신정보로 소개하기 위해 목적어에 수식어구들이 붙어 길어진 것들이었다. 반면에 불변화사 이동이 빈번한 경우는 음절수가 “1” 내지 “2”음절로 비교적 짧았다. 그것은 앞 문맥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 즉 구정보로써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다. 따라서 이 구정보는 높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므로 목적어의 길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0) a. The nurse *jams* the shot *in*, [2음절] and we *roll* Beth back. [1음절] (*Readers Digest*)

b. Kirkbride eased the plane into the soft canopy, *bringing* its nose *up*. [2음절] (*Readers Digest*)

위의 (20a)과 (20b)의 예문은 목적어가 'the shot', 'its nose'와 'Beth'로 음절수가 각각 "2"음절과 "1"음절인 비교적 짧은 형태로서 구동사의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20)의 예문 속의 목적어를 살펴보면 목적어가 "1-2"음절 형태인 소유격 형태나 정관사 명사구 또는 고유명사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선행 담화에서 주제가 되어 구정보인 것을 그 다음에 그 목적어를 다시 언급할 때는 "1-2"음절 형태로 음절수가 짧은 목적어가 더 선호되었다.

(21) a. Over the years, I *threw away* any mail that came from Brandeis University, [11음절] figuring they were only asking for money. (*tuesdays with Morrie*)

b. Just as I started to read, one of the women *struck up* a loud conversation with anyone who would listen. [13음절] (*Chicken Soup*)

그리고, 위의 (21a)와 (21b)의 예문은 구동사의 목적어가 'any mail that came from Brandeis University'와 'a loud conversation with anyone who would listen'로 음절수가 각각 "11"음절과 "13"음절로써 비교적 긴 형태로 구동사의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목적어 any mail과 a loud conversation에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형용사절이나 전치사구와 같은 수식어구들이 붙어 훨씬 더 길어진 형태이다. 담화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화제가 되어 소개되면 처

음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은 목적이 신정보로 소개되어 음절수가 비교적 길어진 형태로, 음절수가 짧을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더 선호되고 길어질수록 이동이 덜 선호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위해 Chen(1986)의 분석 방법에 따라 음절수를 나누지 않고 다음 <표3>과 같이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 100개와 이동되지 않은 문장 246개의 음절수를 각각 평균을 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음절수의 평균 수치비교

불변화사	이동	이동되지 않음
음절수 평균수치	2.5	5.4

위의 <표3>과 같이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에서 음절수의 평균수치는 2.5개로 나타났고, 이동되지 않은 문장에서 음절수의 평균수치는 5.4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절수의 평균 수치를 비교하였는데, ‘목적어의 음절수가 짧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고,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덜 선호된다’ 라는 점에서 앞의 <표2>의 분석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2) a. He *gave out* masks and I pulled one on. [2음절] (*Readers Digest*)

b. As Connie *took* the plates *away*, [2음절] ... (*tuesdays with Morrie*)

c. He *put* the steel pot *down*. [3음절] (*Rich dad Poor dad*)

(23) a. They could get it from him *burned down* his family's home. [5음절] (*Chicken Soup*)

b.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my uncle had said. [6음절] (*Chicken Soup*)

c. ... it can *take away* most of what makes life enjoyable. [8음절] (*Chicken Soup*)

위의 (22)의 예문에서 구동사의 목적어가 'masks', 'the plates'과 'the steel pot'로 음절수가 각각 "2"음절, "2"음절과 "3"음절로써 음절수의 평균수치가 2.5개로 짧은 음절수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었다. 그리고 (23)의 예문에서는 구동사의 목적어가 'his family's home', 'what my uncle had said'와 'most of what makes life enjoyable'로 음절수가 각각 "5"음절, "6"음절과 "8"음절로써 음절수의 평균수치가 5.4개로 긴 음절수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4.2 직접목적어의 언어형태

아래에서와 같이, 분석결과는 직접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일일 수록 높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보이며 직접목적어가 비한정 명사구일 수록 신정보였으며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목적어의 언어형태에 따른 불변화사의 이동 분포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4> 언어형태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의 언어형태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한정명사구	195	74	37.9%	121	62.1%
고유명사	13	6	46.2%	7	53.8%
비한정명사구	112	20	17.3%	92	82.7%
절	26	0	0%	26	100%

위의 <표4>에서 보면, 목적어의 형태를 한정 명사구, 고유명사, 비한정 명사구와 절의 형태로 4가지로 분류한다. 한정 명사구라는 것은 정관사 명사구, 소유격 명사구, 지시사 명사구 등을 말하고, 비한정 명사구라는 것은 부정관사 명사구, 부정지시사 명사구 등을 말한다.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의 비율이 37.9%이고 이동되지 않는 구조는 62.1%로 더 높게 나타났고, 한정 명사구 37.9%보다 고유명사일 때 불변화사 이동 비율이 46.2%로 분포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아래 <표5>에서와 같이, Chen(1986)의 연구에서는 목적어의 형태가 비한정 명사구에서 한정 명사구쪽으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더 선호되었다. 다음은 Chen(1986)의 선행연구 결과이다.

<표5> Chen(1986)의 연구결과

목적어의 언어형태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한정 명사구	157	67	42%	90	58%
고유명사	9	3	33%	6	67%
비한정 명사구	67	9	15.5%	58	84.5%

한정 명사구 > 고유명사 > 비한정 명사구 (불변화사의 선호도)

위의 <표5>에서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 42%, 고유명사 33%와 비한정 명사구 15.5%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따라서 <표4>의 결과로 인해,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의 음절수를 비교해보았다. 음절수의 평균수치가 이동된 구조에서 2.5개로 짧게 나타났고, 이동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4.4개로 2.5개보다는 길게 나타났다. 아래 <표6>과 예문을 살펴보자.

<표6> 목적어가 한정 명사구인 경우, 음절수의 평균 수치분포

불변화사	이동	이동되지 않음
음절수 평균 수치	2.5	4.4

(24) a. As Connie *took the plates away*, I noticed a stack of newspapers that had obviously been read before I got there. (*tuesdays with Morrie*)

b. I *picked up the unopened bag with the tape recorder*.
(*tuesdays with Morrie*)

위의 (24)의 예문과 같이 구동사의 목적어가 정관사 명사구로서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예들이 더 빈번했지만 (24a)와는 달리 (24b)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목적어가 길었다.

그리고 목적어가 고유명사일 때의 예문들은 분석해 본 결과, 불변화사가 이동된 예문에서는 청자나 화자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로서 단순히 이름만을 지칭하였고, 이동되지 않은 예문에서는 신정보로 목적어를 처음 소개하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5) a. The nurse *jams the shot in*, and we *roll Beth back*.
(*Readers Digest*)

- b. Once he arrived, he *sought out* Nimit, the village headman. (*Readers Digest*)

Chen(1986)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구동사의 목적어가 고유명사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더 선호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구조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모두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25a)의 예문에서와 같이 목적어인 고유명사는 앞 문맥에서 언급이 된 사람으로 청자와 화자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써 단순히 Beth로 나타났고, (25b)의 목적어 Nimit은 똑같은 고유명사라 할지라도 그 뒤에 the village headman이라고 덧붙여 설명함으로써 신정보로 소개되었다. Nimit이 청자와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the village headman이란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맥상, 고유명사가 구정보 목적어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신정보 목적어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더 선호되었다.

- (26) a. After what seemed like hours, I *got up some courage* and approached the deputy who was seated down the hall. (*Chicken Soup*)

- b. For most people, just as the last child leaves home, the parent realize they hav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 and they begin to scramble to *put some*

money away. (Rich Dad Poor Dad)

위의 (26)의 예문은 구동사의 목적어가 비 한정 명사구로서 some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 구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26a)와 같이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가 82.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동사의 목적어가 비 한정 명사구일 때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지 않는 것은 비 한정 명사구는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정보로써 화제를 처음 소개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 담화에서 한번 언급이 된 것으로 구정보를 언급할 때는 보통 한정 명사구인 정관사나 지시사, 소유격 등으로 표현되었다.

(27) *The cause of the dream was finding out that Male Pattern Baldness was hereditary. (Readers Digest)*

위의 (27)의 예는 구동사의 목적어가 that 절로 나타난 경우인데, 이것은 100%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았다. 목적어를 간단히 명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절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그 목적어가 앞의 텍스트에서 언급이 없었고 어떤 정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면 신정보 · 구정보적 관계를 살펴보면, 청자에게 무엇을 가장 전달하고 싶은가 라는 문제에 정보의 신·구구별이 관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어와 목적어의 두 가지 요소로만 볼 때, 보통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된 구정보는 문장의 앞쪽 성분인 주어로서 나타나고, 이 구정보인 주어에 의해서 목적어인 신정보가 소개된다. 주어가 이미 벌써 화제가 되어 자주 언급이 됨으로 인해 주제적이므로 구정보가 된다. 따라서, 구정보가 신정보보다 먼저 나타나게 되고 신정보가 뒤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떤 요소가 보통의 어순에 나타나는 위치보다 문미에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신정보 또는 전달 상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정보 가치가 높은 요소가 우측으로 이동된다.

(28) a. He *called up* a girl.

b. He *called* a girl *up*.

그러나 (28)의 예문 같은 이동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았다.

(29) a. "John *pulled out* a present."

"Oh yes, I know which one it was."

b. "John *pulled* a present *out*."

?"Oh, yes, I know which one it was."

(29a)의 첫째 문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a present

가 주의를 끌도록 의도되어 있다. 상대방이 모를 것으로 알고 신정보로서 a present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29b)처럼 out를 문미에 두면, 상대방은 이미 a present를 알고 있다고 화자가 추측한 것이기에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다. (29b)에서는 a present 보다 pull out이라는 동작을 더 중요한 정보로서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목적어가 대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변화사를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30) a. *John *pulled out* it.
 b. John *pulled it out*.

대명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언급할 때 쓰이는 것이므로 구정보를 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구정보의 표현은 지시 표현으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시 표현이란 문맥이나 실제 발화의 현장에서 특정 사물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명확하므로, 대개 정관사를 수반하는 명사, this나 that과 같은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또한 대명사 자체의 의미 내용은 명사에 비교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문미에 전달의 중심을 둔다고 하는 담화 원칙에 맞추기 위해 불변화사를 우측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꾸로 목적어가 길고 복잡하면 불변화사의 이동이 안 되는 것도 거의 같은 이유에서이다.

(31) a. I *called up* the man I met in Boston.

b. * I *called* the man I met in Boston *up*.

(31)의 목적어 the man I met in Boston 은 그 자체 의미 내용이 풍부하다. 따라서 그 같은 문 요소는 전달 상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분명히 신정보로 볼 수 있다. 구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1a)처럼 목적어가 길 경우는 그대로 문미에 두는 것이 좋다.

4.3 직접목적어의 지시적 거리

아래 <표7>에서와 같이, 직접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을수록 높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을 보이며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연속성이 낮아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불변화사의 이동 분포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표7>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비교

지시적 거리(절)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1-2	50	35	70%	15	30%
3-5	36	24	66.7%	12	33.3%
6-10	24	11	45.8%	13	54.2%
11-20	235	31	13.2%	204	86.8%

위의 <표7> 지시적 거리에 따른 분포비교표는 Chen(1986)이 분석한 방법으로 지시적 거리를 “1-2”, “3-5”, “6-10”..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이다. 지시적 거리가 “1”에서 “2” 사이일 때 불변화사가 이동하는 비율이 70%로 나타났고, “3”에서 “5” 사이일 때는 66.7%였고, “6”에서 “10” 사이에서는 45.8%, “11” 이상에서는 13.2% 순으로 아래쪽으로 지시적 거리가 높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덜 선호되었다. 직접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높은 것으로 앞 문맥에서 그 지시대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시대상의 주어진 텍스트에서 주제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시적 거리가 “20”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앞 문맥에서 그 지시대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지시대상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주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자.

(32) a. Even seeing the different patterns on *my bed quilt* jarred my equilibrium. / I had to *turn the quilt over* to its plain muslin backing. / (*Readers Digest*)

b. ... smiling as he pulled up *a chair* to sit down next to me. / Well, he had a funny look on his face at first, / and then he said / he would make us an offer. / Oh, I said, *rocking my chair back* against the wall. (*Rich Dad Poor Dad*)

위의 (32a)에서 구동사 'turn over'의 목적어가 'the quilt'로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이다. 목적어 'the quilt'가 앞의 문맥에서 'my bed quilt'로 바로 앞 절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가 "1"이다. (32b)에서는 구동사 'rock back'의 목적어 'my chair'는 선행 담화에서 "4" 절 앞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가 "4"이다. 지시적 거리가 "1"과 "4"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절에서 언급이 되었을 때,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더 선호되었다.

(33) a. The little girl began to tug at *his jacket*.[10절]... He *slipped off the jacket* and handed it to the girl. (*Chicken Soup*)

b. ..[20절]... Wherever I went in my life, I met people wanting to gobble up something new. *Gobble up a new car*..... (*tuesdays with Morrie*)

반면에 위의 예문 (33a)과 (33b)에서 보면, 구동사 'slipped off'와 'gobble up'의 목적어가 각각 'the jacket'과 'a new car'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이다. 선행 담화에서 목적어가 각각 "11" 절 앞과 "20" 절 이상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가 각각 "11"과 "2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시적 거리가 비교적 멀 때,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다음 <표8>은 Chen(1986)의 분석 방법에 따라 지시적 거리를 절의 수에 따라 나누지 않고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

100개와 이동되지 않은 문장 246개의 지시적 거리를 각각 평균한 수치이다.

<표8> 지시적 거리의 평균 수치비교

불변화사	이동	이동되지 않음
지시적 거리 평균	8.6	17.6

위의 <표8>에서는 불변화사가 이동된 예문과 이동되지 않은 예문의 지시적 거리를 평균한 수치이다.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에서 평균적 지시적 거리는 “8.6”으로 나타났고, 이동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17.6”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의 평균치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지시적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Chen(1986)의 방법대로 절의 수를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와도 같은 것으로 인해, 담화에서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가 낮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더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34) a. Annie dreaded all the tugging on and pulling off, the
laundrying and the folding into *boxes*. / They *dropped*
the boxes off at Goodwill, .(*Chicken Soup*)

b....,seized *land* owned for three decades by 74 year-old

William Gross, / in order to allow a BMW retailer / to
expand his dealership. / In New York, the city of New
Rochelle proposed *taking land away* from...(Readers
Digest)

c. ...He was struggling with something beneath *the sheets*,
/ and I realized / he was trying / to move his hands
toward the opening. / "Hold .." he said. / I *pulled the
covers down* and... (*tuesdays with Morrie*)

d. Somehow *my shoes* slipped off my feet. / I don't know
/ how that happened / because I had socks on, / and the
socks should have *kept my shoes on*. (*Chicken Soup*)

위의 (34)는 모두 지시적 거리가 낮을 때,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된 예문들이다. (34a)에서 구동사 'dropped off'의 목적어가 'the boxes'으로 그 지시대상이 바로 앞 절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시적 거리는 "1"로 나타났고, (34b)에서는 구동사 'taking away'의 목적어가 'land'로 세 번째 절 앞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는 "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4c)에서는 구동사 'pulled down'의 목적어 'the covers'로 그 지시대상이 다섯 번째 절 앞에서 'the sheets'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는 "5"로 나타났고, (34d)에서는 구동사 'kept on'의 목적어가 'my shoes'로 그 지시대상이 네 번째 절 앞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는

“4”로 나타났다. 아래 (35)는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문장에서 지시적 거리가 높게 나타난 예문들이다.

(35) a. Gossip is a way to keep track of social *status* and ...[14절]... in helping us *move up a rung* or two. (*Readers Digest*)

b...and went back to reading *the paper*. ... [15절] ... My dad finally *put down the paper*. (*Rich dad Poor dad*)

c. .[20절] You have the bone structure to *carry off a bald head*. ... (*Readers Digest*)

d. ...[20절]... I *pushed out another breath* and ... (*tuesdays with Morrie*)

(35a)에서 구동사 ‘make up’의 목적어가 ‘a rug’로 그 지시대상이 “15” 절 앞에서 ‘social status’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시적 거리가 “15”로 나타났고, (35b)에서는 구동사 ‘put down’의 목적어가 ‘the paper’로 그 지시대상이 “16” 절 앞에서 언급이 되어 지시적 거리가 “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5c)에서는 구동사 ‘carry off’의 목적어가 ‘a bald head’로 그 지시대상이 “20” 절 앞에서 언급이 없었으므로 지시적 거리는 “20”이다. 왜냐하면, Givón(1983a)을 따라서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거나 적어도 20개 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등장인물에는 항상 ‘20’이라는 수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지시대상이 텍스트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 20절 이전에 언급된 지시대상과 같은 정도로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Givón(1983a)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목적어의 음절길이, 언어형태, 지시적 거리에 따른 직접목적어의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세 가지 가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직접목적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더 선호된다는 Chen(1986)의 가설은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고,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서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 직접목적어의 지속성

아래 <표9>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직접목적어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신정보로 보며 선행 담화와는 관련성이 낮다라는 Chen(1986)의 분석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9> 지속성에 따른 분포비교

목적어의 지속성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3-5	37	12	32.4%	25	67.6%
1-2	121	21	17.4%	100	82.6%
0	183	66	36.1%	117	63.9%

Chen(1986)에 의하면, 불변화사의 이동은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을수록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위의 <표9>에서 보면 목적어가 후행 담화에서 나타나는 지속성이 낮을수록 불변화사 이동이 더 선호되지 않았다. 목적어가 후행 담화에서 나타난 지속성이 “0”일 때 그 목적어는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적으므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 63.9%에 비해 이동된 구조는 36.1%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성이 “1-2”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 비율이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7.4%로 “3-5”일 때 32.4%로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Chen(1986)의 결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표10>은 Chen(1986)의 분석 결과이다.

<표10> Chen(1986)의 지속성 분석결과

목적어의 지속성	합계	이동		이동되지 않음	
		수	백분율	수	백분율
3--5	8	1	12.5%	7	87.5%
1--2	24	9	36%	15	64%
0	75	43	57%	32	43%

위의 <표10>에서 보면, 지속성이 가장 낮은 수치 “0”일 때 불변화사의 이동 비율은 57%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었고, 지속성이 “1-2”일 때 36%이고, “3-5”일 때 12.5%순으로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는 목적어의 지속성이 “3-5”개일 때 보다 “1-2”개일 때에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가 통계 수치상 더 우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불변화사의 이동에 관한 가설 중 지속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그 어떤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따라서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서 마지막 가설인 목적어의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 여부는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에 비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표11>은 구동사의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와 이동되지 않은 구조에서 목적어의 평균적 지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11> 지속성의 평균 수치비교

불변화사	이동	이동되지 않음
목적어의 지속성 평균	0.87	0.96

위의 <표11>은 후행 담화에서 목적어의 지속성을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와 이동되지 않은 구조에서 각각 평균한 것인데 불변화사가 후행 담화와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이동이 빈번하다고 주장한 Chen(198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0.87과 0.96의 수치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앞의 1-2, 3-5개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지속성 수치는 상당한 신빙성이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 여부가 불변화사 이동에 어떠한 지표로도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6) a. The nurse jams the shot in, and we *roll Beth back*. /
Then *her* fight is over. / It says over / as the nurses put
up the side rails of the trolley / and wheel *her* / to the
operating theater.....beside *her* in the holding area, /
...where I caress *my sister's* arm / [4절]..(Readers Digest)

- b. I assume most of us have *filled out a credit application*
for a banker to buy a house or to buy a car.[10절]
(Rich Dad Poor Dad)

위의 (36a)의 예문에서 보면, 구동사 'roll back'의 목적어 'Beth'로 불변화사가 이동된 구조이다. Chen(1986)의 가설에 따르면, 후행 담화에서 목적어의 지속성이 낮아야 하지만 (36a)의 예문은 그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대명사 'her'이 세 번으로 나타났고, 'my sister'이 한 번으로 총 네 번 언급이 되었으므로 지속성은 "4"가 되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36b)의 예문은 구동사 'filled out'의 목적어는 'a credit application'으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이다. 그 지시대상이 신정보이므로 후행 담화에서 화제가 되어 나타나는 지속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행 담화에서 그 지시대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37) a. Pain *knifed up his leg*. / If it was broken, / he would probably die in the mountains-his friends too. / Using both hands, he worked slowly, / carefully to free *his leg*. / It was bruised, /... [5절]...(Readers Digest)

- b. I *put on my sports shoes* and ...[10절]. (Readers Digest)

- c. from some 200 residents and dozens of businesses to *bring in a furniture superstore*. ...[10절]. (Readers Digest)

위의 (37a)의 예문에서 구동사 'knifed up'의 목적어가 'his leg'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로서 목적어가 후행 담화 "10" 절 이내에서 세 번으로 비교적 빈번히 언급되었지만, (37b)와 (37c)의 예문에서는 구동사 'put on'의 목적어가 'my sports shoes'이고, 구동사 'bring in' 목적어는 'a furniture superstore'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이다. 그러나 후행 담화 "10" 절 이내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불변화사의 이동이 후행 담화와는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38) a. ..., he gave up his search, ..[10절]... (*Chicken Soup*)

b. It said as soon as someone dies in a hospital, they pulled the sheets up over their head...[10절](*tuesdays with Morrie*)

위의 (38)의 예문들은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와 이동된 구조의 두 가지 구조에서 모두 목적어가 후행 담화 "10"절 이내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38a)는 구동사 'gave up'의 목적어 'his search'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문장이고 후행 담화 10절 이내에서 목적어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지속성이 "0"으로 나타났다. (38b)에서는 구동사 'pulled up'의 목적어가 'the sheets'로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이어도 또한 지속성이 "0"으로 나타났다. 다음 (39)의 예문은 (38)의 예문과는 반대로 나타난 경우이다.

(39) a...., smiling as he *pulled up a chair* to sit down next to me. / "I asked him if he would teach us to make money", Mike said. / "Oh, and what did he say to that?" I asked with cautious curiosity. / "Well, he had a funny look on his face at first, and then he said he would make us an offer" I said, / rocking *my chair* back against the wall; / I sat there perched on two rearlegs of *the chair*. / ... [5절]
(Rich Dad Poor Dad)

b. My rich dad *gave lots of money away*. / He gave to his church, to charities, to his foundation. / He knew / that to receive *money*, / you had to give *money*. / Giving *money* /is the secret to most great wealthy families. / ... [4절]...
(Rich Dad Poor Dad)

위의 (39)의 예문들은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와 이동된 구조의 두 가지 구조에서 모두 목적어가 후행 담화 “10”절 이내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39a)는 구동사 ‘pulled up’의 목적어가 ‘a chair’로서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문장이므로 그 지시대상이 후행 담화에서 ‘my chair’와 ‘the chair’로 두 번 언급이 되어 그 지속성이 “2”로 나타났지만, (39b)에서는 구동사 ‘gave away’의 목적어가 ‘lots of money’로 불변화사가 이동된 문장인데도 그 지시대상이 후행 담화에서 ‘money’로 세 번 언급이 되어 그 지속성이 “3”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영어 '동사+부사'의 형태를 가진 불변화사 구문에서 불변화사가 이동할 때 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표현의 구조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지만, 대부분의 언어연구가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영향을 받아 구조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맥락을 소홀히 함으로써 담화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자연언어를 설명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Cumming(1982)이나 Chen(1986)같은 기능주의학자들은 화용적인 요인의 관점에서 불변화사의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Chen(1986)은 영어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 모든 환경이 비슷할 경우, 두 가지 가능한 어순 중에 화자나 청자에게 더 선호되는 어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담화적 접근을 통하여 불변화사 이동을 설명하였다.

(1) a. There is a dark-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the book *up* and went upstairs.

b. There is a dark covered book under the dining-table.

John *picked up* the book and went upstairs.

위의 예문에서 원어민들은 (1a)가 더 자연스런 문장이라고 선택했다. 이러한 점은 문장 차원에서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에 Chen은 그의 연구에서 불변화사 이동을 담화상의 직접목적어의 기능에 따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가설로는 다음과 같다.

불변화사 이동은 직접목적어의 '등장인물의 연속성(participant continuity)'이 높고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relevance)'이 낮을 때 잘 일어난다. 즉, 직접목적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높고,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불변화사 이동은 목적어가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높을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가설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목적어의 음절길이, 목적어의 언 형태와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로 측정하였다. 목적어의 음절수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음절수가 짧을수록 불변화사가 이동되는 구조가 선호되고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목적어의 언어형태 분석 결과는 목적어의 형태가 한정 명사구(정관사명사구, 소유격명사구, 지시사명사구 등)에서 비한정 명사구(부정관사명사구, 부정 지시사 명사구, 절)로 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목적어의 지시적 거리를 측정한 결과는 선행 담화의 20절이 이내에서 직접 목적어가 나타난 거리가 짧을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지 않았다.

불변화사의 이동이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가설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목적어의 지속성을 측정하였다. Chen(1986)의 연구 결과는 직접목적어가 후행 담화에서 나타나는 지속성이 높을

수록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았고, 대체로 지속성이 낮아질수록 불변화사의 이동이 선호되어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적어의 지속성이 “3-5”개일 때 보다 “1-2”개로 나타날 때에 불변화사가 이동되지 않은 구조가 통계 수치상 더 우세하게 나타난 결과로 인해, 불변화사의 이동에 있어서 목적어의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설은 Chen(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 분석은 지속성에 따른 <표9> 불변화사의 분포비교와 <표11> 지속성의 평균수치에서와 같이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 여부가 불변화사 이동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변화사 이동에 있어서 목적어의 후행 담화와의 관련성이 불변화사의 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후행 담화보다는 선행 담화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후행담화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더 많은 자료로서 검증해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참 고 문 헌>

- 박근우. 1991. 영어 담화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조성식. 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Akmajian, A. and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and D.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Rowley, MA: Newbury House.
- Chafe, W. 1972. "Discourse Structure and Human Knowledge". In J. B. Carrol and R. O. Freedle, eds, *Language Comprehens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ashington: John Wiley.
- Chen, P. 1986. "Discourse and Particle Movement in English". *Studies in Language* 10.1, 79-95.
- Cumming, S. *et al.* 1982. "Figuring particle movement out or figuring out particle movement". MS. UCLA.
- Dixon, R. M. W. 1982. "The grammar of English phrasal verb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1, 42.
- Givón, T. 1983a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inguistic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ivón, T. 1983b. "Introduction". In Givón, T.
- Givón, T. 1983c.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the functional

- domain of switch reference". In Haiman & Munro (eds) 1983. *Switch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In Givón, T. Rev. ed.
- Halliday, M. A. K. 1985. *An Instruction to Functional Grammar*. Arnold, New York.
- Hopper, P. 1983. "Ergative, passive, and active in Malay narrative". In: Klein-Andreu (ed.) 1983.
- Jespersen. O. 1961.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seven volum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organ, J. 1982 "Discourse theory and the independence of sentence grammar". In Tannen (ed.) 1982.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td.